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이충열/하계상(삼육대)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방법의 진술

창세기 2장 5-6절¹⁾은 한글 성경 및 외국어 성경 역본들, 그리고 구약학자들 간에 그 번역/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²⁾ 따라서 창세기 2장 5절의 시아흐 핫사데(סִיחַ וְחֹטְאֵי)

- 1) 창 2:4에 대한 번역/해석과 기능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공시적/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창 1장의 1절(독립절)과 2절(1+명사로 시작)의 연결이 창 2장의 4절(독립절)과 5-6절(1+명사로 시작)의 연결과 유사하며, 창 1:3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wayyiqtol* 동사 형태가 나오는 것도 창 2:7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창 1장의 2절이 3절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의 상황인 듯이, 창 2장의 5-6절도 7절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의 상황이다.
- 2) 이 주제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학자들은 천사무열,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78-79,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92-93, 그리고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10), 106-107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창 2:6의 에드(אֵד)에 대한 2000년까지의 모든 번역/해석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절한 비평에 관해서는 특히 Gerhard F. Hasel/Michael G. Hasel의 논문 “The Hebrew

www.kci.go.kr

הַחֵטֶה)와 에세브 핫사데(הַחֵטֶה חֲסָבָה),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에 대한 어휘 연구, 창세기 2장 5-6절의 본문 자체에 대한 면밀한 연구,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 다른 본문들과의 간본문적 해석(inter-textual interpretation)을 통하여 창세기 2장 5-6절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해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째 목표이다.³⁾ 창세기 2장 5-6절의 기능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거나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그러므로 창세기 2장 5-6절이 그 협의의 문맥과 광의의 문맥에서 갖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둘째 목표이다. 논자는 이 두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시적/문학적 관점에서 BHS의 히브리어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Term 'ed in Gen 2:6 and Its Connection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ZAW 112 (2000), 321-322를 참조하라.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3) 「구약논단」의 어휘 연구와 번역 및 기능 문제를 다룬 논문들은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칼'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룸(אָרֻם), 아룸(אָרֻם), 예롬(אָ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44-171,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목시'(אֵיֶשֶׁת חַיִּיל/하존 사브)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하계상, "창세기 5:1-3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40-73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인 자료들에 나오는 한 용어의 용례를 통해 그 용어의 시대적 기원과 다양한 의미 등을 연구한 논문은 소형근, "히브리어 '페하'(פֶּה)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를 연구",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266-289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 4) 예를 들면,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John J. Scullion(trans.), (Minneapolis, MN: Augsburg, 1984), 199-20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153-156; C. J.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2006), 102-103.
- 5) 예를 들면,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rev. ed. (OTL; Philadelphia, PN: Westminster Press, 1973), 76-77; Wahlter Zimmerli, cited by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57 그리고 Claus Westermann, 윗글, 199; Derek Kidner, "Genesis 2:5, 6: Wet or Dry?", *Tyndale Bulletin* 17 (1966), 112-114.

2.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창세기 2장 5-6절의 정확한 번역/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창세기 2장 5-6절에 대한 BHS의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וְכָל־שֵׁיט הַשָּׂדֶה טָרָם וְהָיָה בְּאֶרֶץ (창 2:5aa)

וְכָל־עֵשֶׂב הַשָּׂדֶה טָרָם וְצִמָּח (창 2:5ab)

כִּי לֹא הִמְטִיר יְהוָה אֱלֹהִים עַל־הָאָרֶץ (창 2:5ba)

וְאָדָם אֵין לְעֵבֶר אֶת־הָאָרֶץ (창 2:5bb)

וְאֵד וְעֵלָה מִן־הָאָרֶץ וְהִשְׁקָה אֶת־כָּל־פְּנֵי־הָאָרֶץ (창 2:6)

1) 창세기 2장 5a절의 시아흐 핫사데(שֵׁיט הַשָּׂדֶה)와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שָּׂדֶה)⁶⁾

첫째, 창세기 2장 5a절의 시아흐 핫사데(שֵׁיט הַשָּׂדֶ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창세기 2장 5aa절의 시아흐 핫사데(שֵׁיט הַשָּׂדֶה)를 「개역」과 「개역개정」은 “초목”, 「표준」과 「새번역」⁷⁾, 그리고 「공동번역개정」⁸⁾은 “나무”로 번역했다. 영어 역본들은 “shrub of the field.”⁹⁾

6) 연계형(construct chain)을 이루고 있는 이 표현들 자체를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렉 키드너(Derek Kidner)는 시아흐(שֵׁיט)와 에세브(עֵשֶׂב)를 다른 결과로 창 2:5-6은 창 1:2을 다른 용어들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Kidner, 윗글, 109, 112). 천사무엘은 이 연계형 표현들 자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창 2:5-6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창조 직전 물의 혼돈이 있었다는 1:2과 다르다. 본문이 묘사하는 창조 직전의 상황은 쓸모없는 황무지이다. 이 황무지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어떠한 식물도 나지 않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주장했다(윗글, 78 [68도 보라]). 이희학, 윗글, 92도 천사무엘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송병헌, 윗글, 106-107은 논자와는 독립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다.

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은 「표준」이 공식명칭이며,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은 대한성서공회가 2004년 9월부터 공식명칭을 「새번역」으로 하기로 했다.

8) 「공동번역 성서」는 창 2:5-6이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즉 「공동번역개정」과 동일하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9) YLT, JPS, NIV, NASB, TNK.

“plant of the field,”¹⁰⁾ “wild bush,”¹¹⁾ 그리고 “bush of the field”¹²⁾로 번역했다.

시아흐 핫사데(הַשְּׂדֵה הַחֵבֶרֶת)를 정확하게 번역/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 표현이 구약에서 단 1회 바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아흐(חֵבֶרֶת)라는 단어는 이곳 외에도 구약에서 3번 더 나오는데, 욥기 30장 4절에서는 단수형, 창세기 21장 15절과 욥기 30장 7절에서는 복수형이다.¹³⁾ 창세기 21장 15절은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시아흐(חֵבֶרֶת) 중 하나 밑에 이스마엘을 버려두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딱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참조, 창 21:14, 16), 욥기 30장 4, 7절은 광야와 유사한 곳에서 시아흐(חֵבֶרֶת) 주변에 머물러 먹을 것을 찾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참조, 욥 30:3, 6). 따라서 시아흐 핫사데(הַשְּׂדֵה הַחֵבֶרֶת)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관목 건생식물로 가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¹⁴⁾ 뒤에서 에세브 핫사데(הַשְּׂדֵה הָעֵשֶׂב)를 다룰 때 보다 더 분명해질 것인데, 창세기 3장 18절에서 에세브 핫사데(הַשְּׂדֵה הָעֵשֶׂב)는, 시아흐 핫사데(הַשְּׂדֵה הַחֵבֶרֶת)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קִרְיָתִים וְחִבְרֵי־חֵבֶרֶת, “thones and thistles”)와 대조적으로 병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아흐 핫사데(חֵבֶרֶת הַשְּׂדֵה)는 창세기 1장 11-12절에서 창조 주간의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계, 즉 “풀”(דֶּשֶׁא[אֶשְׂרָל], “grass”)과 씨 맺는 “채소”(עֵשֶׂב[עֵשֶׂב], “herb, plant”)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

10) ASV, KJV/NKJV, RSV/NRSV.

11) NJB.

12) ESV.

13) 참조,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1), 1369.

14) 참조, 랜달 요운커, “창세기 2장: 두 번째 창조에 관한 기사인가?”, 발드윈 역음/최종걸 외 옮김, 「창조, 격변, 그리고 갈바리」, (서울: 삼육대학교 지구과학연구소, 2010), 94-95. 원제 John T. Baldwin(ed.), *Creation, Catastrophe & Calvary*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 Assn., 2001).

(에츠[עֵץ], “tree”)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담의 타락 후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¹⁵⁾

둘째, 창세기 2장 5ab절의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חַדְשָׁן)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창세기 2장 5ab절의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חַדְשָׁן)을 「개역」과 「개역개정」은 “밭에는 채소”, 「표준」과 「새번역」은 “들에는 풀”, 그리고 「공동번역개정」은 “풀”로 번역했다. 그리고 영어 역본들은 “herb of the field,”¹⁶⁾ “plant of the field,”¹⁷⁾ “wild plant,”¹⁸⁾ “small plant of the field,”¹⁹⁾ 그리고 “grasses of the field”²⁰⁾로 번역했다.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חַדְשָׁן)에 대한 번역/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חַדְשָׁן)²¹⁾는 구약에서 총 6회 나오는데, 창세기 2장 5절 바로 그 다음 번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18절이며, 출애굽기 9장 22, 25절[2회]과 출애굽기 10장 15절²²⁾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우박 재앙으로 완전히 괴멸된 이집트의 농작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상 창세기 2장 5a절의 시아흐 핫사데(שִׂיחַ הַחַדְשָׁן)와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חַדְשָׁן)에 대한 정확한 번역/해석을 할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창세기 2장 5절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5bβ절의

15) 참조,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102; H. G. Stigers, *A Commentary on Genesi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6), 65; Hamilton, 윗글, 154; Collins, 윗글, 164; 요운커, 윗글, 99-100.

16) YLT, ASV, JPS, RSV/NRSV, KJV/NKJV.

17) NASB, NIV.

18) NJB.

19) ESV.

20) TNK.

21) 에세브 사데(עֵשֶׂב הַחַדְשָׁן)라는 표현은 왕하 19:26과 사 37:27에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 “들의 풀”로 번역했으나 문법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밭의 채소”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할 것이다.

22) 출 10:15b에 나오는데, 「개역개정」의 출 10:12, 15a과 암 7:2에서 “밭의 채소”라고 번역한 것은 “땅의 채소”(에세브 하이레츠[עֵשֶׂב הַיָּבֵשׁ])라고 번역해야 적합할 것인데, 그것은 창 1:11, 12, 29의 “씨 맺는 채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는 부분이다.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עָבַד)는 창세기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3장 23절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장면이다. 게다가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 표현(라아보드 에트-하아다마[לַעֲבֹד אֶת-הָאָדָמָה])²³⁾이 서로 꼭 같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바로 이 두 곳에서만 의미심장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에서 창세기 2장 5a절의 시아흐 핫사데(שִׂיחַ הַצֵּדִי) 및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צֵּדִי)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창세기 2장 5절 바로 그 다음 번에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צֵּדִי)가 나오는 창세기 3장 18절, 그리고 바로 그 구절이 그 전후의 17b절 및 19aa절과 이루는 평행 대구를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창 3:17b) 결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차마흐[חֲמָצִץ] Hiphil)²⁴⁾ 것”(창 3:18a)이며,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의 “소출”(아부르[עֲבוּר], “produce”)²⁵⁾을 먹을 것이고(창 3:17bβ),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食物: 레헴[לֶחֶם], “bread”)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창 3:19aa), 그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에세브 핫사데[עֵשֶׂב הַצֵּדִי])이다(창 3:18b). 즉, 아담이 먹을 것으로 에세브 핫사데(עֵשֶׂב הַצֵּדִי)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수고한 결과로 얻은 그의 소출(아부르[עֲבוּר], “produce”)이며, 그것이 바로 그가 먹을 레헴(לֶחֶם, “bread”)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2장 5aa절의 에

23) 그 외에 동사 아바드(עָבַד)가 명사 아다마(אָדָמָה)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곳은 창 4:2, 12, 삼하 9:10, 잠 12:11; 28:19, 사 30:24, 그리고 속 13:50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총 9번만 동사 아바드(עָבַד)가 명사 아다마(אָדָמָה)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창 2:15에는 콜린스(C. John Collins), 윌글, 104 n. 5의 주장과는 달리 명사 아다마(אָדָמָה)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지 않다.

24) 창 2:5ab의 차마흐(חֲמָצִץ) Qal과 극적인 대조로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라.

25)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아부르(עֲבוּר)에 2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가 붙어있으므로 “네 소출”, 즉 아담이 생산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세브 핫사데(הַשֶּׁבֶט הַחֵטִיב)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18b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aa절의 “레헴”(לֶחֶם, “bread”)과 대응하고 있으므로, 에세브 핫사데(הַשֶּׁבֶט הַחֵטִיב)는 빵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뜻한다고 우리는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위 “창조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104장 14절(참조, 15절)에서 “레헴”(לֶחֶם, “bread”)과 평행으로 나오는 에세브 라아보다트 하아담(הַשֶּׁבֶט לְעִבְרַת הָאָדָם)이다. 그것을 「개역개정」은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역본들은 “herb for the service of man,”²⁷⁾ “vegetation for the service of man,”²⁸⁾ “plants for people to use,”²⁹⁾ “vegetation for the labor of man,”³⁰⁾ 그리고 “plants for man to cultivate”³¹⁾로 옮겨놓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에세브 라아보다트 하아담(הַשֶּׁבֶט לְעִבְרַת הָאָדָם)은 바로 에세브 핫사데(הַשֶּׁבֶט הַחֵטִיב)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창세기 2장 5a절의 시아흐 핫사데(הַשֶּׁבֶט הַיָּחֵד)는, 창세기 2장 5a절과 창세기 3장 18절이 만드는 평행 대구(A, 시아흐 핫사데(הַשֶּׁבֶט הַיָּחֵד), 창 2:5a) : B, 에세브 핫사데(הַשֶּׁבֶט הַחֵטִיב, 창 2:5aβ) :: A', “가시덤불과 엉겅퀴”(창 3:18a) : B', 에세브 핫사데(הַשֶּׁבֶט הַחֵטִיב, 창 3:18b),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17ba-bβ절, 18a절, 그리고 19aa절이 이루고 있는 평행 대구(A,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음 : B,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함 :: A',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낚 : B',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함)를 통해서 볼

26) 카스토도 그와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참조, Cassuto, 윗글, 102).

27) YLT, ASV, KJV, JPS.

28) NKJV.

29) NRSV.

30) NASB.

31) RSV, ESV.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결론지을 수 있다.³²⁾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창세기 2장 5a절에 나오는 두 식물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했으나,³³⁾ 그것들은 농부들의 경작의 대상인 곡물과 경작에 골칫거리인 잡초인 식물 왕국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³⁴⁾

2)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ם)³⁵⁾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ם)는 「개역」과 「개역개정」은 “안개”, 「표준」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개정」은 “물”로 번역했다. 영어 역본은 대부분 “mist”³⁶⁾로 번역했으나 “water”³⁷⁾ 또는 “stream”³⁸⁾으로도 번역했다.

에드(אֶדֶם)에 대한 번역/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이 히브리어 용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점은 이 용어가 이곳 외에 욥기 36장 27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 구약에서 두 번만 나오는 용어(*dis legomenon*)라는 사실, 그리고 욥기 36장 27절의 그 용어에 대한 번역/해석인 “안개”(mist)³⁹⁾나 “증기”(vapor)⁴⁰⁾도 비와 구름의 문맥에서 유추한 것⁴¹⁾이라는 사실이다. 그러

32) 카스토는, 시야흐 핫사데(הַתְּשִׁיבֵה הַחֵטִי)와 동의대구를 이루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시야흐 핫사데(הַתְּשִׁיבֵה הַחֵטִי)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특수화된 것(a particularization of the general concept)”으로 간주하고, 창 21:15의 מַיִם(מים의 복수형) 중의 하나로 보았다(참조, Cassuto, 윗글, 102).

33) 참조, Wenham, 윗글, 58.

34) 요운커, 윗글, 95, 98.

35) 외국 학자들과는 달리, 한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그 결과 새로운 주장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한국 학자들은 천사무엘, 윗글, 78-79, 이희학, 윗글, 92 n. 10, 그리고 송병현, 윗글, 107 등을 참조하라.

36) YLT, ASV, ESV, KJV/NKJV, RSV, JPS, NASB.

37) NJB.

38) NRSV.

39) ASV, ESV, RSV/NRSV, NKJV, NASB, 「개역」, 「개역개정」, 「공동번역개정」.

40) KJV, YLT, JPS, 「표준」과 「새번역」은 ‘증발’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41) 참조, Kidner, 윗글, 109.

므로 우리는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에 대한 정확한 번역/해석을 위한 정보를 창세기 2장 6절의 주어(主語)인 에드(אֶד)의 술부(述部)들 및 비교 언어학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²⁾

먼저 비교 언어학적인 고찰로부터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에 대한 정확한 번역/해석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892년에 아우구스트 딜만(August Dillmann)이 에드(אֶד)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논쟁을 촉발시킨⁴³⁾ 이래 120여 년 동안 술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없어 창세기 2장 6절은 아직도 해석상의 난제로 남아 있다.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는 수메르어에서 아카드어로,⁴⁴⁾ 그리고 그 후 아카드어에서 성경 히브리어로 차용되었다는 주장이 최근까지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러나 2000년에 게르하르트 하젤(Gerhard F. Hasel)과 마이클 하젤(Michael G. Hasel)은 히브리어 에드(אֶד)와 관련된 고대 근동 언어학(1. 직접적인 수메르어 관련성; 2. 간접적인 수메르어 관련성; 3. 아카드어 관련성; 4. 에블라이어 관련성; 5. 이집트어 관련성) 및 고대 근동 문학(1. 이집트 문헌 관련성; 2. 수메르 문헌 관련성; 3. 우가리트 문헌 관련성)에 근거한 주장들을 모두 심도 있게 다루었다.⁴⁶⁾ 하젤 부자(父子)는 이집트 문학 관련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고대 근동 언어학 및 문학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철

42) 참조, 윗글, 110.

43) August Dillmann, *Die Genesis* (Leipzig: Hirzel, 1892), 52; 참조, Gerhard F. Hasel/Michael G. Hasel, 윗글, 321-322; Paul V. Mankowski, *Akkadian Loanwords in Biblical Hebrew* (Harvard Semitic Studies 4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25.

44) Stephen J. Lieberman, *Sumerian Loanwords in Old-Babylonian Akkadian* (Harvard Semitic Studies 22; Missoula, MT: Scholars Press for Harvard Semitic Museum, 1976), 215.

45) 참조, G. F. Hasel/M. G. Hasel, 윗글, 326; Cassuto, 윗글, 104; Westermann, 윗글, 201; Mankowski, 윗글, 25-27, 136 n. 504, 162.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David Toshio Tsumura, *The Earth and the Waters in Genesis 1 and 2: A Linguistic Investigation* (JSOTSS 83; Sheffield: JSOT Press, 1989), 93-122, 159-161을 참조하라.

46) G. F. Hasel and M. G. Hasel, 윗글, 323-337.

저하게 배격했으나, 이집트어 관련성만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집트어 관련성은 이미 1929년에 아브라함 야후다(Abraham S. Yahuda)⁴⁷⁾가 제안했지만 창세기 주석서들⁴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서 베르너 피치홀(Werner Vycichl)⁴⁹⁾과 만프레트 괴르크(Manfred Görg)⁵⁰⁾가 더 나아가 다른 셈족 언어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지함으로써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제임스 바(James Barr)⁵¹⁾조차도 부인하지 못하고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⁵²⁾

야후다는 히브리어 에드(אֵד, 'ed)가 “안개”라는 뜻의 이집트어(*i3d.t*)에서 직접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⁵³⁾ 그것은 “이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와 동의어이기도 하므로 에드(אֵד)는 땅에서 나온 후 이슬이 되어 온 땅을 적시는 안개라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주장했다.⁵⁴⁾ 피치홀은 “이슬”이란 뜻의 이집트어(*i3d.t*)가 “이슬”이라는 의미의 곱트어(*eiote*)와 평행어임을 주목하면서 야후다의 견해를 지지했다.⁵⁵⁾ 괴르크는 그 이집트어(*i3d.t*)와 히브리어 에드(אֵד, 'ed) 사이에 음성학적 일치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후다와 피치홀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근거

47) Abraham S. Yahuda, *Die Sprache des Pentateuch in ihren Beziehungen zum Aegyptischen* (Berlin & Leipzig: Walter de Gruyter, 1929), 150 n. 2; idem., *The Language of the Pentateuch in Its Relation to Egypti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157, 157 n. 3.

48) 예를 들면, Cassuto, *윗글*, 103–104; von Rad, *윗글*, 76–77; Westermann, *윗글*, 200–201; Wenham, *윗글*, 58–59;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7, 354; Hamilton, *윗글*, 154–156.

49) Werner Vycichl, “Das Zeichen für d ‘Hand’ in der Hieroglyphenschrift und die semitischen Entsprechungen des zugrundeliegenden Etymons”, *ZAS* 112 (1985), 169–179.

50) Manfred Görg, “Eine heterogene Überlieferung in Gen 2:6?”, *BN* 31 (1986), 19–24; idem., “Nocheinmal zu ‘ed (Gen 2:6)”, *BN* 50 (1989), 9–10.

51) James Barr, “Limitations of Etymology as a Lexicographical Instrument in Biblical Hebrew”,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1/1 (1983), 50–60, 특히 51.

52) 참조, G. F. Hasel/M. G. Hasel, *윗글*, 323 n. 17, 331–332.

53) Yahuda, *Die Sprache des Pentateuch*, 150 n. 2; idem., *The Language of the Pentateuch*, 157, 157 n. 3, cited by G. F. Hasel/M. G. Hasel, *윗글*, 331.

54) Yahuda, *The Language of the Pentateuch*, 157, cited by G. F. Hasel/M. G. Hasel, *윗글*, 331.

55) Vycichl, *윗글*, 169–171, cited by G. F. Hasel/M. G. Hasel, *윗글*, 332.

하면서도 그 이집트어가 셈어인 가나안어('yād/'id/'ed)로부터의 차용어라고 주장하고 욥기 36장 17절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6절에 대해서도 “이슬/안개”라는 의미의 해석을 지지했다.⁵⁶⁾

하젤 부자(父子)는, 해석사 초기부터 욥기 36장 27절이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를 “안개”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제안⁵⁷⁾이 있지만, “안개/이슬”로서의 에드(אֶד)의 의미는 (1) 초기의 번역들(타르굼들)에 사용되었고,⁵⁸⁾ (2) 심지어 고대로부터 동족 언어들(서부 셈족어인 아랍어와 함셈족어인 이집트어)과 관련되어 왔으며,⁵⁹⁾ (3) 건실한 중세 유대인 학자(다비드 김히[David Kimchi, ca. 1160-1235])의 지지를 받아 왔고,⁶⁰⁾ (4) 전통적인 영어 번역이었으므로⁶¹⁾ 그 해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창세기 2장 5-6절의 본문과 문맥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하늘로부터의 강수, 강의 범람, 운하를 통한 관개 등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인 “아래로부터의 급수”(watering from below)라는 결론으로부터 “안개/이슬”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강하게 지지했다.⁶²⁾

필자는 하젤 부자(父子)가 창세기 2장 5-6절에 대한 깊고 면밀한 연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급수”라고 내린 결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안개/이슬”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만, 그들의 주장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안개/이슬”로서의 에드(אֶד)의 의미가 초기의 번역들, 특히 타르굼들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

56) Görg, “Eine heterogene Überlieferung in Gen 2:6?”, 23-24, cited by G. F. Hasel/M. G. Hasel, 위 글, 332.

57) Barr, 위 글, 50.

58) G. F. Hasel/M. G. Hasel, 위 글, 322, 338.

59) 참조, 위 글, 331-332, 337.

60) 참조, 위 글, 337.

61) 참조, 위 글, 322.

62) 위 글, 338-340.

고 인정되는 보다 더 오래된 번역들은 오히려 “샘”, 즉 “분천”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듯이, 헬라이어 구약 성경인 칠십인 역(LXX)은 폐게(πηγή, “샘, 분수”)로, 라틴어역인 불가타(Vulgata)도 폰스(*fons*, “샘”)로, 시리아어역인 프섯타(Peshitta)도 “샘”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으며, 아퀼라(Aquila, ca. A.D. 130)의 헬라이어역도 “분천”을 암시하는 에피블리스모스(επιβλισμός, “분출 [gushing forth]”)로 번역하고 있다.⁶³⁾ 즉, “안개/이슬”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급수”로서의 “샘, 분천”을 고대의 헬라이어, 라틴, 그리고 시리아어 역본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도 확실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권위가 있는 역본들이 지지하고 있는 “샘, 분천”의 해석을 그들은 왜 지지할 수 없는가?

둘째, 하젤 부자(父子)가 이집트어 관련성은 다루고 있으면서도 아랍어 관련성은 왜 다루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아랍어 관련성을 다루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로타르 코프(Lothar Kopf)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아랍 사전들에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⁶⁴⁾ 패인(D. F. Payne)은 “적절한 언어학적인 통제도 없이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아랍어 사전에 도움을 요청했다. … 그러나 어떤 통제들을 적용할 수 있다. 구약과 비교했을 때 아랍 문헌들이 비교적 늦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아랍어로부터 히브리어로 이차적인 형태들이나 의미들을 읽어 들이는 것은 특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⁶⁵⁾

63) 참조, 윗글, 321, 321 n. 3.

64) 특히 Lothar Kopf, “Das arabische Wörterbuch als Hilfsmittel für die hebräische Lexikographie”, *VT* 6 (1956), 286–302; repr. idem., *Studies in Arabic and Hebrew Lexicography* M. H. Goshen-Gottstein with the assistance of S. Assif(ed.), (Jerusalem: Magnes Press, 1976), 229–245을 보라. James Barr,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With Additions and Correction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112–114, 116–119도 참조하라.

65) D. F. Payne, “Old Testament Exegesis and the Problem of Ambiguity”, *ASTI* 5 (1966–67), 63–64.

셋째, 중세의 유대인 학자인 다비드 김히가 주장한 아랍어 관련성이 20세기 초반 이후로는 전혀 의논과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⁶⁶⁾에도 불구하고, 그를 견실한 학자로 간주하면서 무작정 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견실하고 권위가 있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예외 없이 그 주장이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인 해석이 “안개/이슬”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무게를 그 해석에 부여하는 것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 특히 한글 성경 역본들 중 「표준」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개정」이 히브리어 에드(אֵד)를 “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번역들이, 하젤 부자(父子)가 반박하고 배격한 고대 근동의 언어와 문헌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개/이슬”의 해석이 창세기 2장 6절 자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본문들과의 간본문적 해석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2장 6절의 술부에는 히브리어 동사가 두 개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알라(אָלָא, “올라가다”[go up])는 민수기 21장 17절에서 우물(브에르[בְּעַר], “well”)의 용출(湧出)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며,⁶⁷⁾ 다른 하나인 샤카(שָׁקָא Hiphil: “적시다, 물을 대다”[cause to drink water, give to drink])도 요엘 4장 18절[H 3:18]에서 샘(마안[מַאֲנַי, “spring”])으로 인한 급수(給水)와 관련해서 사용되었음⁶⁸⁾을 우

66) G. F. Hasel/M. G. Hasel, *유태*, 337.

67) 참조, H. Holzinger, *Genesis* (Kurzer Hand-c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 Karl Marti, 1898), 7, cited by Westermann, 200. 따라서 “올라오다”(אָלָא)라는 동사는 지하수가 땅에서 올라올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고 한 이희학의 주장(유태, 92 n. 10)은 사실과 다르다.

68) 유감스럽게도 하젤 부자(父子)는 신 11:10-11에서 나일 강의 운하를 통한 이집트에서의 급수(שָׁקָא Hiphil)를 “아래로부터의 급수”로 간주하고 그것을 비를 통한 가나안의 급수(מָטָר, “rain”)인 “위로부터의 급수”와 대조시키고 있다(G. F. Hasel and M. G. Hasel, *유태*, 339).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고대 근동의 언어학적

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창조 서사시”로 일컬음을 받는 시편 104장에서 창조 주간의 셋째 날에 해당되는 문맥⁶⁹⁾에서 물과 물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및 그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을 언급한 부분이 창세기 2장 6절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시편 104장 9-10절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마안[מַאֲנַיִם, “spring”])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아래로부터의 급수”라는 하젤 부자(父子)의 결론에 동의하여 “안개/이슬”의 전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오히려 “샘/분천”의 해석에 오히려 비중을 더 두고 싶은데,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창세기 2장 5-6절의 본문 자체 및 그것과 관련된 본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한 결론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 5-6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전반적으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본문 전체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한글 번역/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개역」과 「개역개정」은 창세기 2장 6절을 5b절과 연결시키지 않고 5a절과 순접(順接)하는 절로 간주하여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로 번역했다. 「표준」과 「새번역」은 창세기 2장 6절을 독립된 절로 간주하여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로 번역했다. 「공동번역개정」은 창세기 2장 6절을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주장들 중 “강”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즉 “강”이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실 수 없다는 비판과 모순된다. “강”은 아래로 내려갈 뿐이므로 “아래로부터의 급수”가 아니듯이, 나일 강의 운하를 통한 급수도 “아래로부터의 급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69) 참조, Derek Kidner, *Psalms 73-150* (Kidner Classic Commentaries 3;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4), 401; Collins, *유태교*, 85-86.

로 번역하여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된 절로 간주했다.⁷⁰⁾ 그러나 이 모든 역본들의 번역은 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a절은 접속사 키(כִּי, “that, for, when”)에 의해 5b-6절과 구별되지만, 창세기 2장 6절은 5b절과 마찬가지로 그 접속사의 지배를 받는 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세기 2장 5b절에서 시작하는 접속사 키(כִּי)가 이끄는 절을 5a절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절’(for로 시작하는 절)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아흐 핫사데(הַיִּם הַיְבֵשִׁים),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thorns and thistles)는 비가 오지 않으면(창 2:5b a) 자랄 수 없다는 논리, 즉 아래로부터의 물로만 적셔진(watered; 2:6) 땅에서는 성장과 번식을 할 수 없다는 카삐토의 주장⁷¹⁾은, 데렉 키드너(Derek Kidner)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⁷²⁾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키(כִּי)로 시작하는 창세기 2장 5b절을 “원인을 나타내는 절”로 보기보다는 ‘때를 나타내는 절’(when으로 시작하는 절)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⁷³⁾ 뿐만 아니라 창 2장 6절은 그 의미에 있어서 5절과 역접(逆接)⁷⁴⁾으로서 접속사 키(כִּי)가 이끄는 절의 연장선상에 연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장 5-6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해석을, 비록 히브리어 본문과 절의 순서는 바뀌었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0) 즉, 창세기 2장의 6절을 7절에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땅의 티끌을 반죽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로 해석한 것이다.

71) Cassuto, *유클*, 102-103.

72) Kidner, “Genesis 2:5, 6: Wet or Dry?”, 109-110.

73) 참조, 독일어 역본 ZUR.

74) 역접이 칠십인 역(LXX)과 외국어 역본들(ASV, JPS, NASB, KJV/NKJV, RSV/NRSV, TNK, TOB 등)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한글 역본들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참조, *BibleWorks*, Version 9 (2012). 하헬 부자(父子)도 그 역접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참조, G. F. Hasel/M. G. Hasel, *유클*, 336).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나
 분천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을 때,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직 없었고
 곡물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3. 창세기 2장 5-6절의 기능

앞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개역개정」의 창세기 2장 5절에서 “초목”과 “밭에는 채소”, 그리고 6절에서 “안개”로 번역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번역/해석은 각각 “가시덤불과 엉겅퀴”, “곡물”, 그리고 “분천”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2장 5-6절을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A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아직 없었고(창 2:5a α)
- A' 곡물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창 2:5a β)
- B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창 2:5b α)
- A''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나(창 2:5b β)
- B' 분천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을 때(창 2:6)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창세기 2장 5b α 절의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는 창세기 6-8장, 특히 창세기 7장 4a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므로(마타르[מָטַר]⁷⁵ Hiphil)” 발생하는 노아 홍수 사건과 대응한다. 우리는,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마

75) 히브리어 동사 마타르(מָטַר)는 명사 마타르(מָטָר)에서 파생된 동사(denominative verb)이다(참조, BDB, 565).

타르(מִטָּר)가 두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5ba절의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לֹא הִמְטִיר יְהוָה)와 창세기 7장 4a절의 “내가 땅에 비를 내려”(עַל-הָאָרֶץ מִמְטִיר)에서 확연한 구문의 유사성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상호 관련지어서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창세기 2장 5ba절은 창세기 7장의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 2장 5a절 및 5bb절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와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창세기 2장 5ab절의 “사람도 없었으나”의 상황은 바로 그 다음의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있게 되는’ 상황과 직결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의 히브리어 에드(אֵד)를 “분천”으로 번역/해석한다면, 이 분천도 창세기 2장 5ba절에서 먼저 언급된 비와 함께 노아 홍수에 대한 복선(伏線)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큰 깊음의 샘들”도 터졌기 때문이며(창 7:21b), “분천”은 “큰 깊음의 샘들”에 비하면 규모나 용출력에 있어서 매우 작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 창세기 2장 5b-6절에서 그 중심인 5bβ절(경작 모티브)은 5a절(“가시덤불과 엉겅퀴” 및 “곡물”)와 대응하며, “사람”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의 창조 기사인 7절과도 연결되고, 5bβ절의 ‘경작 모티브’는 5a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곡물”과 함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마침내 연결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b-6절의 교차대구의 바깥쪽 날개(outer wings)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과 “분천”의 용출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상

76) 논자는 Kenneth A. Mathews, *Genesis 1-4:26* (NAC;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193-195와 독자적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송병헌, 윗글, 107은 케네스 매튜스(Kenneth A. Mathews)를 언급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항'과 “큰 깊음의 샘들”의 폭발적인 분출이 있는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5-6절은 그 협의의 문맥에서는 7절의 인간 창조를 위한 도입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광의의 문맥에서는 창세기 3장,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7장을 위한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2장 5-6절에 대한 번역/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창세기 2장 5절의 시아흐 핫사데(הַיָּבֵשׁ הַיָּבֵשׁ)와 에세브 핫사데(הַיָּבֵשׁ הַיָּבֵשׁ)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곡물”로 각각 번역/해석해야 한다.

둘째, 창세기 2장 6절의 에드(אֲדָמָה)는 “분천”으로 번역/해석해야 한다.

셋째, 창세기 2장 5b절에서 시작하는 접속사 키(כִּי)가 이끄는 절을 ‘원인을 나타내는 절’로 보기보다는 ‘때를 나타내는 절’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창세기 2장 6절은 5절과 그 의미에 있어서 역접(逆接)으로서 접속사 키(כִּי)가 이끄는 절의 연장선상에 연결해야 한다.

넷째, 히브리어 본문과 비록 절의 순서는 바뀌었을지라도, 창세기 2장 5-6절은 “야훼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나 분천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을 때,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직 없었고 곡물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해석해야 한다.

다섯째, 창세기 2장 5-6절은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 가시덤불과 영경귀가 땅에 아직 없었고(창 2:5a α)

A' 곡물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창 2:5a β)

B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창 2:5b α)

A''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나(창 2:5b β)

B' 분천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을 때(창 2:6)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 창세기 2장 5b-6절에서 그 중심인 5b β 절(경작 모티브)는 5a절(“가시덤불과 영경귀” 및 “곡물”)과 대응하며, “사람”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의 창조 기사인 7절과도 연결되고, 5b β 절의 ‘경작 모티브’는 5a절의 “가시덤불과 영경귀” 그리고 “곡물”과 함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참조, 창 3:17a-19a α , 23)과 마침내 연결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b-6절의 교차대구의 바깥쪽 날개(outer wings)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 및 “분천”의 용출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상황’과 “큰 깊음의 샘들”의 폭발적인 분출이 있는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5-6절은 그 협의의 문맥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인간 창조를 위한 도입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광의의 문맥에서는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를 위한 복선(伏線)의 기능을 하고 있다.

5. 참고문헌

「성경전서 개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개역개정」,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 랜달 요운커, “창세기 2장: 두 번째 창조에 관한 기사인가?”, 발드윈 엠크/최종걸 외 옮김, 『창조, 격변, 그리고 갈바리』 (서울: 삼육대학교 지구과학연구소, 2010), 89-100. 원제 John T. Baldwin(ed.), *Creation, Catastrophe & Calvary*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2001).
- 소형근, “히브리어 ‘폐하’(הָאֱלֹהִים)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 연구”,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266-289.
- 송병헌,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목시’(אֵימָה וְחֵלְוָה/하존 샤브)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천사무엘,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롬(אֵרוֹם), 아롬(אֵרוֹם), 에롬(אֵ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44-171.
- _____, “창세기 5:1-3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40-73.
- Barr, James., “Limitations of Etymology as a Lexicographical Instrument in Biblical Hebrew”,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1/1 (1983), 41-65.

- _____,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With Additions and Correction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 BibleWorks*, Version 9 (2012).
-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77).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 Collins, C. J.,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2006).
- Dillmann, August., *Die Genesis* (Leipzig: Hirzel, 1892).
- Görg, Manfred., “Eine heterogene Überlieferung in Gen 2:6?”, *Biblische Notizen* 31 (1986), 19-24.
- _____, “Nocheinmal zu 'ed (Gen 2:6)”, *Biblische Notizen* 50 (1989), 9-10.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 Hasel, Gerhard F./Michael G. Hasel, “The Hebrew Term 'ed in Gen 2:6 and Its Connection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2 (2000), 321-340.
-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ed.), (Oxford, Clarendon Press, 1907).
- Holzinger, H., *Genesis* (Kurzer Hand-c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 Karl Marti, 1898).

- Kidner, Derek., “Genesis 2:5, 6: Wet or Dry?”, *Tyndale Bulletin* 17 (1966), 109-114.
- _____, *Psalms 73-150* (Kidner Classic Commentaries 3;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4).
- Kopf, Lothar., “Das arabische Wörterbuch als Hilfsmittel für die hebräische Lexikographie”, *Vetus Testamentum* 6 (1956), 286-302.
- _____, *Studies in Arabic and Hebrew Lexicography* M. H. Goshen-Gottstein with the assistance of S. Assif (ed.), (Jerusalem: Magnes Press, 1976).
- Lieberman, Stephen J., *Sumerian Loanwords in Old-Babylonian Akkadian* (Harvard Semitic Studies 22; Missoula, MT: Scholars Press for Harvard Semitic Museum, 1976).
- Lisowsky, Gerhard.,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1).
- Mankowski, Paul V., *Akkadian Loanwords in Biblical Hebrew* (Harvard Semitic Studies 4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 Mathews, Kenneth A., *Genesis 1-4: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Payne, D. F., “Old Testament Exegesis and the Problem of Ambiguity”,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5 (1966-67), 48-68.
-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tigers, H. G., *A Commentary on Genesi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Tsumura, David Toshio., *The Earth and the Waters in Genesis 1 and 2: A Linguistic Investigation* (JSOTSS 83; Sheffield: JSOT Press, 1989).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rev. ed.* (OTL; Philadelphia, PN: Westminster Press, 1973).
- Vycichl, Werner., “Das Zeichen für d ‘Hand’ in der Hieroglyphenschrift und die semitischen Entsprechungen des zugrundeliegenden Etymons”,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112 (1985), 169-179.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John J. Scullion(trans.),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Yahuda, Abraham S., *Die Sprache des Pentateuch in ihren Beziehungen zum Aegyptischen* (Berlin & Leipzig: Walter de Gruyter, 1929).
- _____, *The Language of the Pentateuch in Its Relation to Egypti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검색어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

시아호 학사데

에세브 학사데

에드

때를 나타내는 절

A Study on the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Genesis 2:5-6 and Its Function

Choong Ryeol Lee, Ph. D. Candidate

Dep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Kye Sang Ha,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Korean Bible versions, foreign language Bible versions, and Old Testament scholars do not agree on the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Genesis 2:5-6, and their translations/interpretations are even contradictory. Thus, this paper first aims to translate/interpret Genesis 2:5-6 more correctly through a terminological study on *śīah hasśādeh* (הַיְשֵׁב הַיָּבֵשׁ) and *'ēseb hasśādeh* (הַיְשֵׁב הַיָּבֵשׁ עֵשֶׂב) in verse 5 and *'ēd* (עֵד) in verse 6, a close study on the text of Genesis 2:5-6 itself, and an

www.kci.go.kr

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text done in association with other related texts. Further, most studies have provided little or no help in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Genesis 2:5-6. Therefore, the second goal of this study is to perceive the function that Genesis 2:5-6 has in the broader context, as well as in its immediate context. Keeping these two goals in mind, we proceeded with this research from a synchronic/literary perspectiv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Hebrew text in the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Taking Genesis 21:15 and Job 30:4, 7, where *śīah* (שׂיח) occurs, into account, even though *śīah hasśādeh* (שׂיח הַשָּׂדֶה) in Genesis 2:5 is used only once in the Old Testament, we identified the meaning of *śīah hasśādeh* (שׂיח הַשָּׂדֶה) through the parallelisms in Genesis 2:5a and 3:18, and in Genesis 3:17ba-bβ, 18a, and 19aa. We identified the meaning of *'ēseḇ hasśādeh* (עֵשֶׂב הַשָּׂדֶה) in Genesis 2:5 in relation to Psalm 104:14, first taking into account its usage in Genesis 3:18, Exodus 9:22, 25[2x], and 10:15. Attention was then paid to the significant expression *la'abōd 'et-hā'adāmāh* (לְעַבֵּר אֶת-הָאָדָמָה), where the Hebrew verb *'abad* (עָבַד, “till”) is first used (in Gen 2:5). It appears once more, in 3:23, these two verses being its only occurrences in the Old Testament. In addition, we took notice of the parallelism which Genesis 3:18, where *'ēseḇ hasśādeh* (עֵשֶׂב הַשָּׂדֶה) occurs right after 2:5, forms with 3:17b, 19aa. The term *'ēḡ* (אֵד) in Genesis 2:6 occurs once more (in Job 36:27) in the Old Testament, but its translation/interpretation there is nothing but a deduction from its context. Thus, the information for the exact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ēḡ* (אֵד) in Genesis 2:6 seemed to have to be obtained from the predicate which corresponds to *'ēḡ* (אֵד), the subject of Genesis 2:6, and from comparative linguistics. However, the existing

views, based on comparative linguistics, were proven to be unconvincing by Gerhard F. Hasel and Michael G. Hasel, and even the view that they newly highlighted and reinforced is not clearly persuasive. The reason is that they neither meticulously read Genesis 2:6 itself, nor carefully did 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it in association with other related texts. The Hebrew verb *alah* (אָלָה, “go up”), which is one of the two Hebrew verbs in the predicate of Genesis 2:6, is used for the going up of a well in Numbers 21:17, and the other Hebrew verb *šāqāh* (שָׁקַח *Hiphil*: “cause to drink water, give to drink”) is also used for the water supply of a spring in Joel 4:18[H 3:18]. A much more decisive fact is that, in the context corresponding to the third day of the Creation week in the so-called “Creation epic” (Ps 104), God’s activity separating the dry land from the waters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separation is completely done is vividly portrayed in verses 9-10 (ESV): “You [God] set a boundary that they [the waters] may not pass, so that they might not again cover the earth. You make springs gush forth in the valleys; they flow between the hills.”

In regard to the text of Genesis 2:5-6 itself, verse 5a is differentiated by the conjunction *ki* (כִּי) from verses 5b-6, but verse 6 is a clause which is dominated by the conjunction just as verse 5b is. And it is logically proper to regard the clause of Genesis 2:5b, which starts with the conjunction *ki* (כִּי), not as a causal clause but as a temporal clause for verse 5a, since *śīḥāḥ haśśādeh* (שִׁיחַ הַשָּׂדֶה), that is, “thorns and thistles” can grow and propagate on the earth which is watered from below without rain. Besides, Genesis 2:6, which, as for its meaning, has a disjunctive relation with 2:5, must be seen to be in line with the *ki* (כִּי) clause.

As for the function of Genesis 2:5-6, we paid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situation from verse 5a β (no man) to verse 7 (man's coming into being), to the transition from the pre-Fall situation in Genesis 2 to the post-Fall situation in Genesis 3, and to the fact that, especially compared with Genesis 7:4a ("I [Yahweh God] will rain on the earth"), Genesis 2:5ba ("Yahweh God did not rain on the earth") is clearly related to the Flood by the same Hebrew verb *māṭar* (מָטַר *Hiphil*) and the apparent similarity of the syntax.

Through this study,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in regard to the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Genesis 2:5-6, as well as its function.

First, *śīaḥ haśśādeh* (שִׁיחַ הַשָּׂדֶה) and 'ēseḅ haśśādeh (עֵשֶׂב הַשָּׂדֶה) in Genesis 2:5 should be translated/interpreted as "thorns and thistles" and "grain/cereals" respectively.

Second, 'ēḡ (עַיִן) in Genesis 2:6 should be translated/interpreted as "fountain."

Third, it is logically proper to regard the clause in Genesis 2:5b, which starts with the conjunction *kī* (כִּי), not as a causal clause but as a temporal clause, and Genesis 2:6, which, as for meaning, has a disjunctive relation with 2:5, to be in line with the *kī* (כִּי) clause.

Fourth, Genesis 2:5-6 should be translated/interpreted: "When Yahweh God did no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t a man to till the ground but a fountain went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face of the ground, none of thorns and thistles were yet in the earth and no grains yet sprouted up."

Fifth, Genesis 2:5-6, following the order of the Hebrew text, can be schematized as follows.

A none of thorns and thistles was yet in the earth (2:5a α)
 A' and no grain yet sprouted up (2:5a β)
 B when Yahweh God did not rain on the earth (2:5b α)
 A'' and there was not a man to till the ground (2:5b β)
 B' but a fountain went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face of the ground (2:6)

Sixth and last, in Genesis 2:5b-6 which makes a chiasm, its chiastic center 2:5b β (the motif of tilling) corresponds to 2:5a (“thorns and thistles” and “grain”) and is linked by the term *'ādām* (אָדָם, “man”) to 2:7, which is the story of man’s creation, whereas the ‘motif of tilling’ in 2:5b β , along with “thorns and thistles” and “grain” in 2:5a, is ultimate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man’s fall in Genesis 3 (see vss. 17a-19a α , 23). The ‘situation in which God did not rain’ and the going up of a “fountain” which are the outer wings in the chiasm of Genesis 2:5b-6 is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e Flood in Genesis 7 which is related to the ‘situation in which God rained’ and the explosive gushing of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Genesis 2:5-6, therefore, functions in its immediate context as the introduction to the story of man’s Creation in Genesis 2:7, and in its wider context as an advance hint of the story of man’s Fall in Genesis 3, and further of the story of the Flood.

Keywords

the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Genesis 2:5-6 and its function

śīaḥ haśśāḡeh

'ēseḡ haśśāḡeh

'ēḡ

temporal clause

- 투고일: 2016년 7월 15일
- 심사일: 2016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8일

www.kci.go.kr